

## 일본의 10월 무역수지 과거 최대 적자 기록

- 일본의 '12. 10월 무역수지는 5,489억엔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시현
- 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4.1% 증가했으나, 對中 자동차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적자를 기록
- 10월의 무역적자가 과거 최대를 기록함으로써 엔 매도가 증가하여 달러대비 엔화가치는 7개월 만에 82엔대로 하락

□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, 수출은 전년대비  $\Delta 6.5\%$ , 수입은 전년대비  $\Delta 1.6\%$ 로 10월의 무역수지는 과거 최대 규모인 5,490억엔 적자를 기록

- 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4.1% 증가하여 22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으나, 자동차는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2.3% 감소, 철강도 9.7% 감소함에 따라 5조 1,499억 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

### <일본의 월별 무역 추이>

(단위: 억엔, %)

월별	수출	증가율	수입	증가율	수지
2011년 10월	55,069	-3.8	57,899	17.9	-2,830
11월	51,962	-4.5	58,874	11.5	-6,912
12월	56,239	-8.0	58,322	8.2	-2,083
2012년 1월	45,105	-9.2	59,919	9.6	-14,815
2월	54,384	-2.7	54,130	9.3	254
3월	62,037	5.9	62,908	10.6	-871
4월	55,660	7.9	60,899	8.1	5,239
5월	52,332	10.0	61,504	9.4	-9,172
6월	56,430	-2.3	55,838	-2.2	592
7월	53,131	-8.1	58,356	2.2	-5,226
8월	50,453	-5.8	58,092	-5.3	-7,638
9월	53,584	-10.3	(P) 59,201	4.1	(P) -5,617
10월 (P)	51,500	-6.5	(P) 56,990	-1.6	(P) -5,490

주: (P)는 속보치 자료: 재무성

- 수입은 10월 1일 석유석탄세금 인상을 앞두고 9월에 연료수입을 앞당긴 요인으로 원유 수입이 19.6% 감소,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통신기기는 29.6% 증가하여 5조 6,989억엔으로 2개월 만에 감소
- 지역별 수출입은 영토문제로 갈등이 깊은 중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영향으로 對中 무역수지는 4,065억엔의 적자
  - 10월의 對中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82.0% 감소, '01년 10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의 88.3% 감소에 이어 11년 만에 대폭 감소
  - 중국경제의 성장감속 영향으로 자동차부품은 28.1% 감소, 중기용 엔진 등 원동기는 42.7% 감소
  - 중국에서의 수입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는 23.5%, 주변기기를 포함한 전산기류는 25.0%, 의류는 4.8% 증가
  - 對美 수출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3.1%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증가, 對EU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여 2개월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
    - \* 미국에서의 수입 증가 항목으로서는 자동차 +116.2%, 원동기 +15.3%
    - \* EU에서의 수입은 의약품 +35.3%, 자동차 +8.5 등
  - 중국을 포함한 對아시아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하여 무역흑자는 20개월 연속 감소
- 일본의 '12.10월 對韓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△3.2%인 3,942억엔이고 수입은 △2.4%인 2,696억엔, 무역수지는 1,246억엔의 흑자를 기록

## 〈국가별 수출 증가율〉

(단위: %)

	미국	EU	아시아(중국 포함)	중국
2012년 6월	15.1	-21.3	-4.4	-7.4
7월	4.7	-25.0	-9.1	-11.9
8월	10.3	-22.9	-6.8	-9.9
9월	0.9	-21.1	-8.3	-14.1
10월 (P)	3.1	-20.1	-4.9	-11.6

주: (P)는 속보치, 자료: 재무성

□ 일본의 국가별 수출은 모두 감소하였으며, 일중 간의 갈등도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수출 회복이 지연될 전망으로 엔화 가치 등락이 지속

○ 11월 21일 재무성 무역통계 발표로 엔 매도가 가속화되어, 對달러는 81.9 엔까지 하락하여 7개월 만에 엔저를 기록

\* 對유로도 한 때 1유로 = 105엔으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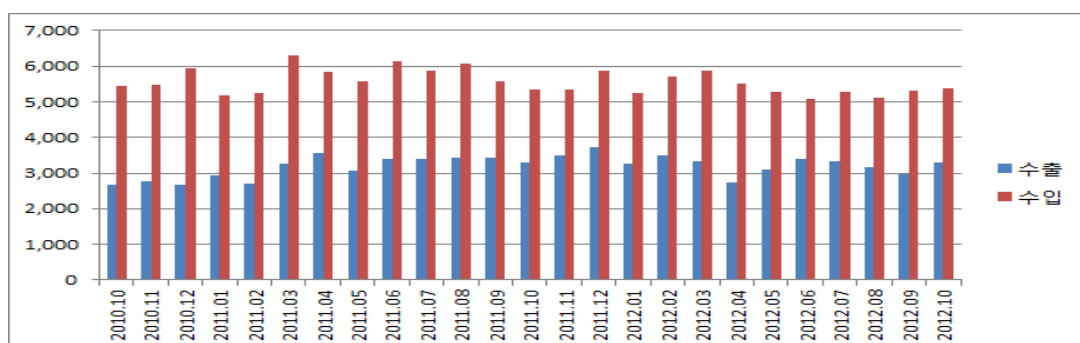
- 차기 총리 후보인 자민당 아베 대표가 대규모 금융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
- 미국의 10월 주택착공 건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, 또 일본의 무역수지가 시장예상인 3,500억엔을 크게 상회하여 엔화 매도 움직임이 확산
- 영토문제로 인해 일본의 對中 수출이 감소하며 수출기업들이 확보한 외화를 엔으로 교환하려는 추세가 약해지는 것으로 보임
- 노무라 증권은 “일본의 무역적자 기조가 정착되어 엔 매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”고 설명
- 엔화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2011년 3월 이후 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2011년에는 2.1엔, 2012년에는 3엔으로 엔저-달러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## □ 시사점

- 엔저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,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
  - 제일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‘재정절벽’에 따른 급격한 재정긴축에 대한 불투명성이 제거되어야만 엔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9월의 수출 감소 비율과 비교했을 때,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대EU 수출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對美, 對아시아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
  - 일중 갈등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중국경제는 조만간 회복될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 및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가까운 장래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
- 10월의 한일 간 무역은 작년 동월대비 감소하였지만, 9-10월은 수출·수입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여 연말에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

### 한국의 對日 무역

(단위: 백만달러)



자료: 통계청

- 일본의 對韓 수출은 전자부품이, 한국의 대일 수출은 통신기기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폰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한일 간 무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

<참고자료>

재무성, '2012년 10월분 무역통계(속보) 개요' (2012.11.21.)

제일생명경제연구소, '엔저 지속 낙관 시나리오' (2012.11.27)

일본경제신문(2012.11.21/22)